

한국인 성인학습자의 영어 습득에 있어서의 UG에 대한 접근성*

조수근

(한국디지털대학교)

Cho, Sookeun. 2007. **The Accessibility of Universal Grammar in Korean Adults' English Learning.**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5(2), 99-11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whether Universal Grammar(UG) is accessible to Korean adult learners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 comprehension task has been conducted on 20 Korean adult learners of English to access Korean adults' knowledge of the Complex Noun Phrase Constraint in English. The finding is that Korean adults exhibit respect for the Complex Noun Phrase Constraint in English. This suggests that Universal Grammar functions in Korean adults' English learning, providing an evidence showing that the acquisition device which operates in first language acquisition is also operative in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주제어 (Key words): CNPC, Universal Grammar, accessibility to UG, Korean adults' English learning

1. 서론

아이들은 언어를 배우는데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 언어란 매우 복잡하고 추상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은 태어 난지 불과 몇 년 안에 누가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자기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이해하게 된다.

* 본 논문은 2005년 7월 27일 서강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언어학회 2005년 여름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논문의 수정 보완에 귀중한 조언을 주시고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현대 언어학에서는 아이들이 언어에 대해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고도 빨리 언어를 배우는 것은 아이들이 흔히 UG(Universal Grammar)라 불리는 ‘언어습득 장치’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아래 그림 1의 언어습득과정 모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단어나 문장과 같은 기초언어자료를 듣고 선천적으로 주어진 언어습득 장치의 도움을 받아 최종적으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데 필요한 어른들의 문법을 습득하게 된다.

그림 1. 언어습득 과정

기초언어자료 -> 언어습득 장치 -> 문법

언어습득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언어습득 장치가 필요한 것은 처음 언어를 배울 때 주어지는 기초언어자료가 매우 한정되어 있고 불충분한데 비해 그 결과물인 문법은 아주 복잡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이들의 언어습득은 기초언어자료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며 선천적으로 주어진 언어습득 장치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다.

문장의 어떤 구조들은 그 구조 안의 어떤 것도 외부의 요소와 연관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 이런 구조상의 특징은 ‘섬 제약조건(island constraints)’¹⁾으로 정의된다. 섬 제약조건과 연관된 문장 구조는 언어습득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데, 즉 섬 제약조건은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래의 (1a)와 (2a)의 문장은 영어에서 허용이 되는 문장인데, (1b)와 (2b)의 문장은 비문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

1) Ross(1967)에 의해 처음 제안된 섬 제약조건은 복합명사구 제약조건(Complex Noun Phrase Constraint), 주어 제약조건(Subject Constraint), 부가어 섬 제약조건(Adjunct Island Constraint), 의문문 섬 제약조건(Wh-Island Constraint) 등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문장에서 이동 규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진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섬제약조건은 한국어에도 (i)에서와 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Han, 1990, p.72).

(i) a. 복합명사구 제약조건:

*[존이 [NP [s t_i t_j 찾고 있는 OP_i]] 사람을 만난 OP_j] 보물
‘the treasure [wh_i John met [the person [wh_o t_i was looking for t_j]]’

b. 부가어 제약조건:

??[[s t_i 만난 후에] 존이 집에 간 OP_j] 메리
‘Mary [wh_o John went to home [after he met t_i]]’

- (1) a. Who_i did you believe [_S that the woman met t_i in town]?
 b. *Who_i did you see [_{NP} the woman [_S that met t_i in town]]?
 (2) a. Who_i did the woman decide [_S that she should consult t_i]?
 b. *Who_i did the woman decide [_S after she should consult t_i]?

(1b)에서, 주절의 문두에 있는 의문사 who를 복합명사구(즉, 절을 포함한 명사구) 안에 있는 껍과 연관시키는 것은 복합명사구 제약조건(Complex Noun Phrase Constraint)을 위반하기 때문에 비문법적이다. 그리고 (2b)에서 주절의 문두에 위치한 의문사 who를 부사절 안의 껍과 연관시키는 것은 부가어 제약조건(Adjunct Island Constraint)을 위반하는 것이다.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아동들은 섬 제약조건을 위반한 이들 문장들이 비문인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문장들이 비문인 것을 기초언어 자료로부터 배운 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모로부터 섬 제약조건을 위반한 이러한 문장을 결코 들어 본 일이 없을 뿐더러, 이러한 문장들이 틀린 것이다 라고도 결코 부모로부터 가르쳐진 일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섬 제약조건이라는 문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습득과정에서 이미 선천적으로 주어진 어떤 능력으로부터, 즉 언어습득 장치의 도움을 받아 그 문법을 배운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언어습득분야에서의 많은 연구들은 실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아이들이 섬 제약조건을 잘 지킨다는 결과를 보여주어 언어습득 과정에 언어습득 장치²⁾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Otsu, 1981; de Villiers et al., 1990; Goodluck et al., 1992; McDaniel et al., 1995).

그런데 아이들의 모국어 습득과정을 설명하는데 이용되는 그림 1과 같은 언어습득과정 모델은 외국어를 배우는 어른들의 언어 습득과정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즉, 선천적으로 주어진 언어습득 장치는 일생을 통해 모국어 언어습득과정에서 변함없이 계속 작용하고 나아가 외국어습득에서도 똑같

2) 언어습득 장치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지만 ‘언어습득 장치는 섬 제약조건과 같은 구체적인 문법의 형태를 가졌다’는 1980년대의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를 통한 Noam Chomsky와 그의 동료들의 주장이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섬제약 조건은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하나의 UG, 즉 언어 습득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작용한다고 한다(Thomas, 1991; Flynn, 1996; Crain & Thornton, 1998). 이 같은 주장은 특히 스페인어, 프랑스어, 덴마크어와 같은 유럽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섬 제약조건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을 통해 자주 증명이 되고 있다(Flex, 1988; Johnson, 1988; Schachter, 1990; Martohardjono, 1992; White, 1988, 1992).

그러나 유럽 언어가 아닌 한국어나 중국어와 같은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이들이 영어의 섬 제약조건을 잘 지키는가에 대한 실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Bley-Vroman et al.(1988)은 피실험자들에게 주어진 문장에 대해 정문인지 비문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문법성 판단 실험(grammatical judgement task)을 통해 영어를 배우는 한국 성인들이 섬 제약조건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를 알아보는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한국 성인들은 섬 제약조건을 위반한 영어 문장의 75%에 대해 비문으로 잘 판단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그들은 한국 성인들의 영어 습득 과정에서도 언어습득 장치가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Schachter(1990)는 Bley-Vroman et al.에서와 같은 문법성 판단 실험을 통한 연구를 실시했는데, 한국인들의 경우 섬 제약조건을 위반한 영어 문장에 대해 올바르게 비문으로 판단한 비율이 약 25% ~ 52%로 낮고, 중국인의 경우에도 한국인보다 조금 나았을 뿐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그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성인의 영어습득 과정에 언어습득 장치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논문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떻게 섬 제약조건 중의 하나인 영어의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을 습득하는지를 이해도측정 실험(comprehension task)을 통해 조사하여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에게도 UG라는 언어습득 장치가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실험 방법

2.1. 실험 대상

이 실험은 서울에 소재한 한 명문대학의 3-4학년에 재학 중인 20-25세의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20명의 대학생 성인이 참가하였다. 실험에서

는 실험 대상자들의 높은 영어 실력이 요구되었다. 이것은 실험에 사용되는 문장이 관계절을 포함하는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갖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이 같은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즉, 실험 문장이 이해되지 않으면 실험 결과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게 된다. 실험대상자들 모두는 13세에 공식교과과정으로 중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이들 중 남자와 여자는 각각 10명씩이었다. 그리고 이 실험에서는 4명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 성인들이 통제 집단으로 참가하였다.

2.2. 실험 문장과 절차

실험 대상자들은 질문서(questionnaire)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테스트를 받았다. 실험대상자들은 질문서에 이름, 나이, 학과, 학년과 같은 간단한 개인정보를 적게 한 후 Otsu(1981)에서 사용된 (3)과 같은 이야기를 읽고 (4)와 같은 의문문에 답을 쓰도록 요청되었다.

(3) Jane is drawing a monkey with a crayon. The monkey
is drinking milk with a straw.

(4) What is Jane drawing the monkey that is drinking milk with?

(4)의 의문문은 만약 실험 대상자들이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잠재적으로 (5a)나 (5b)와 같은 이중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5) a. What_i is Jane drawing [_{NP} the monkey [_S that is drinking milk]]
with t_i?

b. What_i is Jane drawing [_{NP} the monkey [_S that is drinking milk
with t_i]]?

즉, 실험 대상자들은 (5a)에서처럼 의문사 what를 주절에 있는 전치사 with의 목적어 겹과 연관시켜 Jane이 그림을 그리는 도구를 나타내는 'crayon'으로 해석하거나, (5b)에서처럼 의문사 what를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을 구성하는 명사구(즉, NP) 안의 종속절에 있는 전치사 with의 목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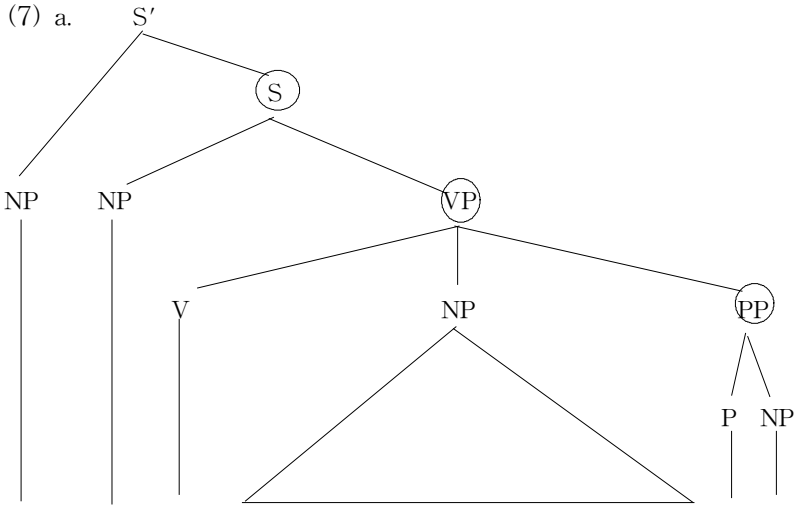
깍과 연관시켜 원숭이가 물을 마시는 도구인 ‘straw’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실험 대상자들은 주어진 (4)의 질문에 잠재적으로 ‘crayon’이나 ‘straw’로 둘 다 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험대상자들은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crayon’만으로 답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실험 대상자들이 (4)의 의문문에 대해 ‘straw’가 아닌 ‘crayon’을 정답으로 선택하는 것을 그들이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의문사 what를 명사구 안의 종속절의 깍과 연관시켜 해석하는 것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O’Grady(1997)에 의해서 제안된 (6)과 같은 ‘구조적 거리 원리(Structural Distance Principle)’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6) 구조적 거리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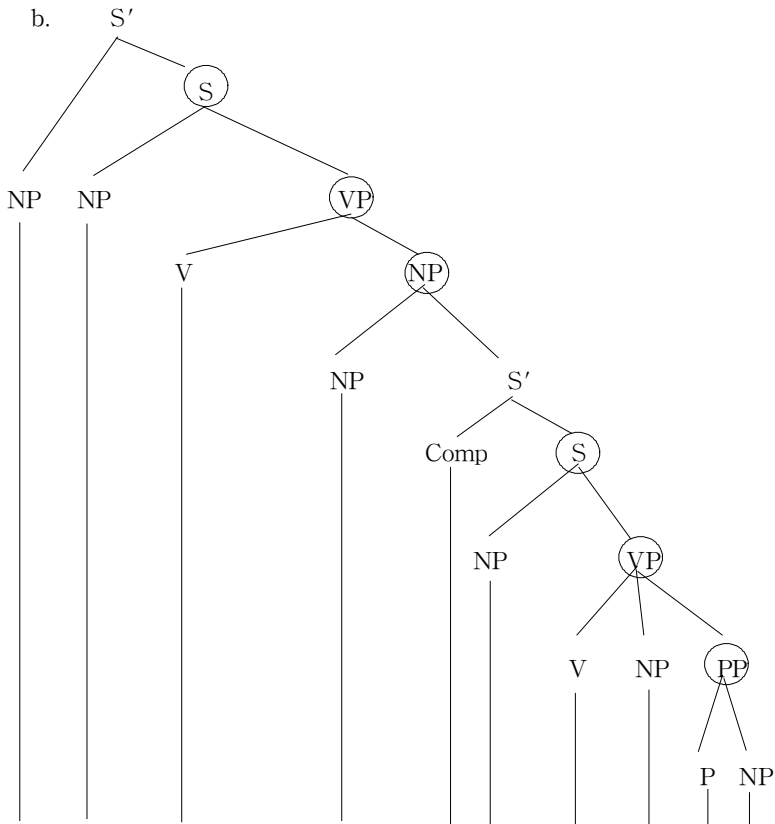
최대 투사범주(S, NP, VP 등)의 수로 표시된 어떤 요소와 그 요소와 연관된 깍 사이의 구조적인 거리가 문장의 복잡성을 결정한다.

즉, 구조적 거리 원리에 따르면 (5a)의 문장은 (7a)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의문사 what과 깍 사이에 최대투사범주가 세 개(즉, S, VP, PP) 존재한다.



What_t(is)Jane drawing [_{NP} the monkey [_S that is drinking milk]] with t_i?

그러나 (5b)의 문장은 (7b)에서와 같이 의문사 what과 갭 사이에 최대투사 범주가 여섯 개(즉, 주절의 S, VP, NP와 종속절의 S, VP, PP) 있게 되어 그 만큼 (5a)의 문장에 비해 문장의 복잡성이 크다.



What_i(is)Jane drawing[_{NP} the monkey [_S that__is drinking milk with _{t_i]]?}

구조적 거리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갭이 문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밖의 어떤 요소와 관련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험 대상자들은 (4)의 질문을 (5a)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쉽게 이해하고 정답으로 'crayon'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구조적 거리 원리는 언어 습득 과정에서 흔히 관찰되는데, 이것은 (8)과 같은 복문 구조를 갖는 문장에서 의문사 when에 대한 해석으로 덜 내포된 주절의 갭이 더 선호되는 현상뿐만 아니라 (9), (10)의 의문문이나 관계절 구조에서 목적어 갭보다 주어 갭을 갖는 구문의 선호 현상을 설명

해 줄 수 있다.

(8) 복문 구조

When_{i/j} did [_S the boy [_{VP} say [_S he [_{VP} hurt himself t_i]]] t_j]?

(9) 의문문 구조

a. Who_i [_S t_i is helping the boy]?

b. Who_i is [_S the boy [_{VP} helping t_i]]?

(10) 관계절 구조

a. the truck_i [_S that t_i pushed the car]

b. the truck_i [_S the car [_{VP} pushed t_i]]

예를 들어, (8)과 같이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을 갖지 않는 보통의 복문 구조에서는 의문사 when이 종속절의 껍이나 주절의 껍으로 둘 다 연관되어 해석이 될 수 있는데, de Villers et al.(1990)은 3;7-6;11세 사이의 아동 25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아동들이 (8a)와 같은 복문 구조에서 의문사 when을 종속절 안의 껍보다는 주절에 있는 껍으로, 즉 자신이 다친 시간보다는 소년이 말한 시간으로 더 많이 이해하였다고 밝혔는데(32% vs. 68%), 이것은 의문사 when과 종속절 안의 껍 사이에는 최대투사범주가 네 개 있는 반면(즉, 주절의 S, VP와 종속절의 S, VP), 주절의 껍과의 사이에는 최대투사범주가 한 개 있어(즉, 주절의 S) 그 만큼 구조적인 거리가 짧고 따라서 문장의 복잡성이 낮아 습득 상 유리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실험 대상자들이 (4)의 의문문에 대한 정답으로 ‘crayon’을 선택할 때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을 적용하는지, 구조적 거리 원리를 적용하는지를 구별해 내는 것은 이 연구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실험대상자들에게 (4)의 의문문(편의상, 아래에 (11)로 다시 씀)에 대한 정답을 적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답이 또 있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있다면 그것을 쓰도록 요청하였다.

(11) What is Jane drawing the monkey that is drinking milk with?

또 다른 정답이 있는지를 묻는 것은 (4)의 질문에 대해 실험대상자들이 ‘crayon’이라는 정답 외에 또 다른 정답을 선택하는 경우 이들이 복합명사

구 제약조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거리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복합명사구 제약 조건은 실험대상자들이 의문사 what를 복합명사구 제약 조건을 구성하는 명사구 속의 종속절의 겹과 연관시키는 것을 불허하고 명사구 밖에 있는 주절의 겹과만 연관시키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실험대상자들은 ‘crayon’ 외에 다른 정답(즉, straw)을 선택할 수 없으나, 구조적 거리의 원리는 의문사 what를 문장에서 많이 내포된 겹보다 덜 내포된 겹과 연관시키는 것을 단지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의 선택만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crayon’과 ‘straw’를 모두 정답으로 허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실험대상자들에게는 de Villers et al.에서 사용된 (12)와 같은 이야기를 읽고 (13)과 같은 의문문에 대한 답을 쓰도록 요청되었다.

(12) A girl went for a walk at the park with her dog. Unfortunately she lost her dog there. So she went to the police station and she reported that she had lost her dog.

(13) Where did the girl say she had lost his dog?

(13)의 의문문은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이 적용되는 환경을 갖는 (4)의 의문문과 달리 (14)에서 보이는 것처럼 단순한 복문 구조를 가지고 있다.

(14) Where_{vj} did [s the girl say [s she lost his dog t_i] t_j]?

(14)의 문장에서 주절이나 종속절은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문사 where는 주절의 겹과 연관될 수 있고 또한 종속절의 겹과도 연관될 수 있다. 따라서 실험 대상자들은 보통의 절이 복합명사구 제약 조건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절의 겹(즉, at the police station)과 종속절의 겹(즉, at the park)을 둘 다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실험대상자들이 두 대답을 선택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위해서 (4)의 의문문과 같이 (13)의 의문문에 대해서도 또 다른 정답이 있을 수 있는지를 묻고 그 답을 적도록 하였다. (13)의 실험 문장은 실험대상자들이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을 구성하는 명사구 안의 종속절과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을 구성하지 않는 보통의 종속절을 구별하는지를 알아보아 그들이 복합

명사구 제약조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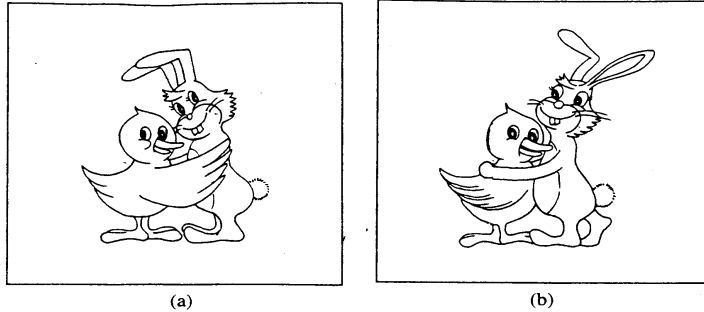
실험 문장과 절차를 다시 정리해 보면, 실험 대상자들에게는 (4), (13)과 같은 질문을 주고, 이들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별하였다. 다시 말해, 만약 실험 대상자들이 (4)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절의 ‘crayon’만을 선택하고(즉, 첫 번째 질문에서 ‘crayon’을 선택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대답이 없다고 말함), (13)의 질문에 대해서는 ‘at the police station’과 ‘at the park’을 둘 다 자유롭게 선택한다면(즉, 첫 번째 질문에서 ‘at the police station’과 ‘at the park’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첫 번째 질문에 대답했던 것과 다른 대답이 있다고 말함) 이들은 (4)의 문장에서 절을 포함하는 명사구를 복합명사구 제약 조건으로 잘 인식하고 있어 그 절 안의 껍을 의문사 what과 연관시키지 않으며, (13)의 문장에서는 명사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주절과 종속절을 복합명사구 제약 조건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올바르게 인식하여 주절과 종속절의 껍을 모두 의문사 where와 연관시키게 되는 것이다.

실험 대상자들에게는 (4)와 같은 유형의 의문문이 4개, (13)과 같은 유형의 의문문이 4개, 총 8개의 실험 문장이 적절한 이야기와 함께 서로 섞여 주어졌다. 그리고 실제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실험 대상자들에게는 예비 실험이 실시되었다. 예비 실험에서는 3개의 관계절 문장이 각각 상응하는 한 쌍의 그림과 함께 주어졌는데, 그것은 실제 실험에서 실험 대상자들에게 (4)의 의문문과 같은 관계절을 포함하는 복잡한 문장 구조가 주어지는데, 이들이 비록 명문대학교에 재학하는 고학년 대학생이어서 영어 실력이 충분하리라고 예상되지만 혹시 관계절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실험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³⁾ (14)와 그림 2는 예비 실험에서 사용된 문장과 그에 상응하는 한 쌍의 그림 예를 보여주고 있다.

(14) There is a rabbit that hug a duck.

3) (13)과 같은 보통의 복문 구조는 일반적으로 관계절 보다 쉽게 습득된다고 여겨지므로 예비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2. 예비 실험의 문장에 주어진 한 쌍의 그림



실험 대상자들에게는 (14)의 관계절 문장을 읽고 그림 2에 있는 한 쌍의 그림을 본 후 그 관계절 문장과 일치하는 그림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실험 대상자들이 그림 (b)를 고르면 주어진 관계절을 잘 이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비 실험에서 합격하는 기준은 주어진 3개의 관계절 문장 중 두 개를 잘 이해하는 것이었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실험 대상자 20명 모두 3개의 관계절을 읽고 관계절과 일치하는 그림을 잘 선택하여 예비 실험을 통과하였다.

실험 대상자들이 모두 예비 실험을 통과하였으므로 바로 실제 실험이 실시되었다. 실험 대상자들은 아래 (15)의 예에서처럼 먼저 지시문을 읽은 후 Story 1, Story 2와 같은 두 유형의 실험 문장과 그에 상응하는 이야기를 읽고, 실험 문장으로 주어진 질문에 대답하고, 또 다른 정답을 허용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도 대답하도록 요청되었다. 질문지에서는 모두 영어가 사용되었다.

(15) 실제 실험의 예

Read the following stories and answer to the questions.

Story 1

Jane is drawing monkey with a crayon. The monkey is drinking milk with a straw.

Question: What is Jane drawing monkey that is drinking milk with?

Answer: _____

Is there another answer? If yes, what is it? Write down.

Story 2

A girl went for a walk at the park with her dog. Unfortunately she lost her dog there. So she went to the police station and she reported that she had lost her dog.

Question: Where did the girl say she had lost his dog?

Answer: _____

Is there another answer? If yes, what is it? Write down.

그런데 이와 같은 실험을 처음으로 겪어보아 실험 방법에 익숙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실험 대상자들은 질문지를 읽으며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부분은 손을 들어 질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실제 몇 몇의 학생은 실험 방법에 관해 질문을 하였다.

3. 결과

표 1은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 통제 집단이 예상대로 복합명사구 제약 조건이 적용되는 (4)와 같은 의문문 ‘What is Jane drawing the monkey that is drinking milk with?’에 대해 의문사 what를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을 구성하는 명사구 안의 종속절의 겹과는 연관시키지 않고 주절에 있는 겹과만 연관시켜 Jane이 그림을 그리는 도구를 나타내는 ‘crayon’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 영어 원어민 통제 집단의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이 적용되는
의문문에 대한 반응

crayon	straw	crayon & straw (crayon > straw)	crayon & straw (straw > crayon)
100%	0%	0%	0%
(16/16)	(0/16)	(0/16)	(0/16)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실험대상자들도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이 적용되는 의문문에 대해 원어민 통제 집단과 비슷하게 의문사 what를 대부분 주절에 있는 갭과 연관시켜 Jane이 그림을 그리는 도구를 나타내는 'crayon'으로 해석하였고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을 구성하는 명사구 안의 절에 있는 갭과 연관시켜 원숭이가 물을 마시는 도구인 'straw'로 해석한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87.5% vs. 5%). 그리고 다른 대답이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도 아주 적었다(7.5%).

표 2. 실험대상자들의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이 적용되는 의문문에
대한 반응

crayon	straw	crayon & straw (crayon > straw)	crayon & straw (straw > crayon)
87.5%	5%	7.5%	0%
(70/80)	(4/80)	(6/80)	(0/80)

표 3은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보통의 복문 구조를 갖는 (13)과 같은 의문문 'Where did the girl say she had lost his dog?'에 대한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 통제 집단의 반응을 보여주는데, 예상대로 이들은 의문사 where를 주절의 갭과 종속절의 갭으로 모두 연관시켜, 첫 번째 질문에서는 'at the police station'이나 'at the park'의 둘 중 하나로 해석하고 또 다른 대답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첫 번째 질문에서의 대답과 다른 대답으로의 해석을 허용한 경우가 아주 많았다(68.25%). 다시 말해, 의문사 where를 주절의 갭이나 종속절의 갭으로만 해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표 3. 영어 원어민 통제집단의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의문문에 대한 반응

crayon	straw	crayon & straw (crayon > straw)	crayon & straw (straw > crayon)
18.75%	12.5%	50%	18.25%
(3/16)	(2/16)	(8/16)	(3/16)

표 4는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보통의 복문 구조를 갖는 의문문에 대한 실험대상자들의 반응을 보여준다. 실험대상자들은 영어 원어민 통제 집단과는 다르게 의문사 where를 주절의 겹과 종속절의 겹으로 모두 해석한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16.25%). 많은 경우가 주절의 겹으로만 연관시켜 'at the police station'으로 해석하거나 종속절의 겹과만 연관시켜 'at the park'으로 해석하였다.

표 4. 실험 대상자들의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의문문에 대한 반응

crayon	straw	crayon & straw (crayon > straw)	crayon & straw (straw > crayon)
65%	18.75%	13.75%	2.5%
(52/80)	(15/80)	(11/80)	(2/80)

실험대상자들은 영어 원어민 사용자들과 다르게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이 적용되는 (4)의 문장과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보통의 복문 구조를 갖는 (13)의 문장에 대해 모두 주절의 겹을 많이 선호하여 (각각 87.5% & 65%), 두 문장 구조를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중요하다($F(1,19)=2.781, p<.05$). 그리고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이 적용되는 문장보다 보통의 복문에서 주절의 겹과 종속절의 겹이 모두 선택되는 경우가 7.5% 대 16.25%로 더 많다는 것은($F(1,19)=2.333, p<.05$) 실험대상자들이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이 적용되는 구조와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보통의 복문 구조를 서로 다른 것으로 구별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4. 결론

이 연구에서 우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 성인들이 어떻게 영어의 섬 제약조건의 하나인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을 습득하는지를 이해도 측정실험을 통해 조사하였다.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이 적용되는 문장을 이용한 실험 결과는 한국인들이 영어의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을 잘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인들이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을 구성하는 명사구 안의 절에 있는 갭을 회피하는 것은 O'Grady의 구조적 거리 원리를 따르는 것 때문이 아니라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분명히 보여주었다. 만약 'What is Jane drawing the monkey that is drinking milk with?'의 실험 문장에 대해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이 아닌 구조적 거리 원리가 적용되었다면 의문사 what는 주절의 갭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을 구성하는 명사구 안의 절의 갭으로도 잘 못 해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절의 갭이 선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을 구성하지 않는 보통의 복문 구조를 갖는 'Where did the girl say she had lost his dog?'의 실험 문장에 대한 조사 결과는 한국 성인들이 복합 명사구 제약조건을 구성하는 문장 구조를 보통의 문장 구조와 구별하여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한국 성인들이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 주고 있다.

한국 성인들이 영어의 복합명사구 제약조건을 잘 지킨다는 사실은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 성인 학습자들에게도 UG라는 언어습득 장치가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나아가 성인들의 외국어 습득 과정에서도 언어습득 장치가 작용한다는 외국어 습득 이론에 대한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Bley-Vroman, R., Felix, S., & Ioup, G. (1988). The accessibility of universal grammar in adult language learning. *Second Language Research*, 4, 1-32.
- Crain, S. & Thornton, R. (1998). *Investigations in Universal Grammar*.

Cambridge: MIT Press.

- de Villiers, J., Roeper, T., & Vainikka, A. (1990). The acquisition of long-distance rules. In L. Frazier and J. de Villiers (Eds.), *Language processing and language acquisition* (pp.257-97). Dordrecht: Kluwer.
- Flex, S. W. (1998). UG-generated knowledge in adult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S. Flynn & W. O'Neil (Eds.), *Linguistic theory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277-294). Dordrecht: Kluwer.
- Flynn, S. (1996). A Parameter-setting model of L2 acquisition. In W. Ritchie and T. Bhatia (Eds.),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121-58). San Diego: Academic Press.
- Goodluck, H., Foley, M., & Sedivy, J. (1992). Adjunct islands and acquisition. In H. Goodluck & M. Rochemont (Eds.), *Island constraints* (pp. 181-94). Dordrecht: Kluwer.
- Han, Jongim. (1990). *Movement and empty categories in Korean syntax*. Seoul: Hansin.
- Johnson, J. (1988). Critical period effects on universal properties of language: The status of subadjacency in acquisition of a second langu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Martohardjono, G. (1992). Wh-movement in the acquisition of a second language: A cross-linguistic study of 3 languages with and without overt movement.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Workshop on the Acquisition of Wh-Movemen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 McDaniel, D., Chiu, B., & Maxfield, T. (1995). Parameters for wh-movement types: Evidence from child language.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3, 709-53.
- O'Grady, W. (1997). *Syntactic develop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tsu, Y. (1981). Universal Grammar and syntactic development in children: Toward a theory of syntactic development. Doctoral dissertation. MIT.

- Ross, J. R. (1967). The Grammar of Quantification. Doctoral dissertation. MIT.
- Schachter, J. (1990). On the issue of completenes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econd Language Research*, 6, 93-124.
- Thomas, M. (1991). Universal Grammar and knowledge of reflexives in a second langu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
- White, L. (1988). Island effect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S. Flynn & W. O'Neil (Eds.), *Linguistic theory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144-172). Dordrecht: Kluwer.
- White, L. (1992). Subjacency violation and empty categories in L2 acquisition. In H. Goodluck & M. Rochemont (Eds.), *Island constraints* (pp. 445-464). Dordrecht: Kluwer.

조수근

110-800 서울시 종로구 계동 1-21

한국디지털대학교 실용외국어학과

전화: (02) 6361-1929

E-mail: sookeunc@kdu.edu

Received: 20 March, 2007

Revised: 20 May, 2007

Accepted: 30 May, 2007